

패션잡지 기자·증권맨·방송작가... 전문직 소설 쓰기 붐

“새로운 인생... 문학은 내 운명”

최근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잇달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성 작가들이 소설의 핵심인 서사(narrative) 부족으로 문체나 형식실험에 치중하는 반면, 이들 ‘전문직 소설가’들은 풍부한 서사를 구사한다는 강점을 지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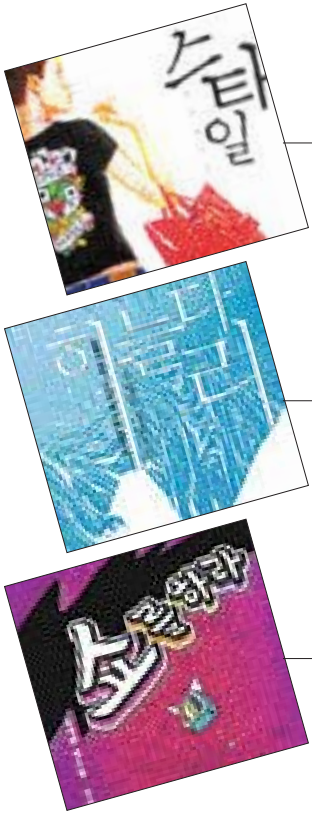
이들의 작품은 가짜 이야기가 아닌 ‘리얼한 직업의 세계’와 ‘살아있는 캐릭터’로 작가 자신이 속했던 세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1억 원의 원고료가 지급되는 제4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스타일’(예담)의 백영옥씨는 패션잡지 ‘하퍼스 바자’에서 피쳐 에디터로 일한 경험을 살려 화려한 패션계의 숨은 이야기를 솔직하면서도 발달하게 그렸다.

또 까다로운 배우들과의 인터뷰, 스킨지 진 체험기 등 패션잡지 기자인 주인공의 일과를 통해 패션잡지 기자의 고달픈 세계를 리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세계문학상 심사위원인 은희경씨는 “젊은 세대들이 소비하고 들여다보기를 열망하는 음식, 패션, 섹스 등의 세계를 매우 역동적으로, 수다스럽게, 대단히 잘 읽히는 문체로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계간 ‘문학의 문학’이 실시한 제1회 5천만원 원고료 장편소설 공모 당선작 ‘하늘다리’의 작가 우영창씨는 22년 경력의 ‘증권맨’, 저자는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뒤 증권회사에 다니며 틈틈이 시를 써 3권의 시집을 내기도 했다.



패션잡지 기자 백영옥 ‘스타일’

증권맨 우영창 ‘하늘다리’

방송작가 김태희·정수현 ‘쇼를 하라’

리얼한 직업의 세계 ‘살아있는 이야기’ 펼쳐

소설 ‘하늘다리’는 30대 미모의 증권사 직원이자 ‘골드미스’인 맹소해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담았다.

‘무한도전’(MBC) 방송작가 김태희씨의 ‘논스톱’(MBC) 정수현씨는 오랜 방송작가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장편소설 ‘쇼를 하라’(문학사상사)를 펴냈다.

했던 방송국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한편의 ‘쇼’를 위해 수많은 제작진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방송 그 이면에 담긴 방송국 풍경을 엿볼 수 있다.

유명 연예인과 이름이 똑같은 방송국 생활이 종종 고달픈 방송작가 ‘이효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치열한 방송 현장에서 싸우는 사랑과 배신, 도전, 로맨스, 감동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미술학 박사 출신의 미술 전문가 이은 씨가 유명화가의 그림 모작을 둘러싸고 벌어진 살인사건을 그린 미술 소설 ‘미술관의 쥐’(예담)를 펴낸 바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최윤정씨 시립미술관 스튜디오 큐레이터 레지던시 선정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이 창작스튜디오 큐레이터 레지던시 참가자 공모를 통해 입주 큐레이터로 최윤정(여·31·시진)씨를 선정했다.

지난 1일 시립미술관의 양산동스튜디오에 입주한 최씨는 오는 11월까지 창작스튜디오의 교육 프로그램과 입주 작가들의 전시에 참여하게 된다.

최씨는 “오는 11월 입주 작가들의 작업 과정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매치포인트-that is’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겠다”면서 “입주 기간 동안 광주 젊은 작가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익대 국어국문학과와 서울대 인문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한 최씨는 대추리 현대미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대구시립미술관 ‘art in daegu’ 전 전시코디네이터로 참여했다.

큐레이터 레지던시는 큐레이터가 입주 작가들과 함께 스튜디오에 머물면서 전시기획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하반기 대관 신청

광주문예회관은 2008년 하반기 공연장(대극장·소극장) 사용 예약 신청을 받는다.

예약 기간은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시·시립예술단체 공연 날짜는 예약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순수 예술 및 전통 예술공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는 공연 작품 등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22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

문의 062-510-9251~9254.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정교한 동그라미 ‘파동과 떨림’

관화가 오이람씨 11~20일까지 서울 UM갤러리서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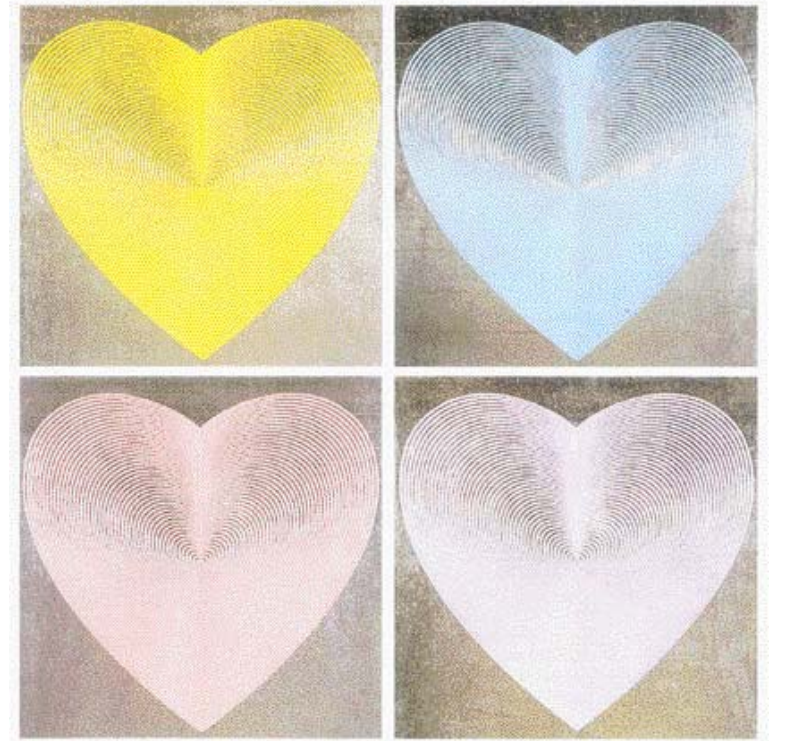
‘실리온 작가’로 불리는 증견 관화가 오이람씨가 11~20일까지 서울 UM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오씨는 ‘존재의 파장(EXISTENCE-WAVE)’을 주제로 실리온으로 꽃과 하트 등을 형상화한 작품을 보여준다.

그의 실리온 관화는 평면의 한계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형상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파랑, 노랑, 황토색 등을 넣은 실리온을 얇게 펴 말린 뒤 곡수 가닥처럼 쌓여 화면에 솟출하게 붙이는 독특한 기법이 인상적이다.

지난해 오씨는 특허청으로부터 실리온에 색을 혼합해 다양한 색감을 연출하는 평면 회화기법과 제작공정 등의 특허를 따내기도 했다.

미술평론가 이태형씨는 “오씨의 작품 속 선의 파장은 명상적이고 고요하다”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인 공명 현상을 느낄 수 있



‘EXISTENCE-WAVE’

게 해주는 작품들이다”고 평가했다.

조선훈 회화과와 도쿄 다마미술대 예술대학원 관화과를 졸업한 오씨는 2004 광주 비엔날레 한국특급, 이집트 국제관화 트리엔날레 등에 참가했

다. 또 호주 멜버른 아트페어, 중국국제 아트페어, 이집트 국제관화 트리엔날레 등에서 독자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열적인 ‘첼로 소나타’

박문경 첼로 독주회 14일 광주문예회관



박문경 첼로 독주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박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전주곡·사라방드·지그 등으로 구성된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C장조)’, 라틴 아메리카의 광활한 평야 지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허니스테리의 ‘팜페나나 2번’을 들려준다.

전남대와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한 박씨는 독일 쾰른 음악대학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음대에서 첼로와 지휘를 전공했으며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광주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문의 062-225-2296.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 광주시청 앞서 ‘우주인 성공기원 토크 한마음대회’

(사)광주연예예술인협회(회장 유방희)가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성공기원 토크 한마음대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광주출신이자 한국인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씨가 우주탐험을 마치고 무사귀환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약에’의 조창호, 김용임, 박진도, 박정식, 진국아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Movie listings for Happy Time and 영화안내 sections, featuring titles like GP506, 연의 황후, and others across various theaters.